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황보정¹ · 박희옥²

¹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생, ²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The Effects of Personality, Ego-resilience,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on the Adaptation to College among New Nursing Students from Various Regions

Hwangbo, Jeong¹ · Park, Heeok²

¹Graduate School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Daegu, Republic of Korea; 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Daegu, Republic of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rsonality, ego-resilience,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on the adaptation to college among new nursing students residing in various region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75 freshmen in nursing departments at 7 universities located in D Metropolitan cit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questionnaire from June 20, 2022 to July 1, 2022.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IBM SPSS/WIN 28.0 software. **Results:** The average scores of participants were as follows: personality (4.10±0.41), ego-resilience (3.55±0.62), commitment to career choice (3.36±0.59), and adaptation to college (3.63±0.58). The factors influencing college adaptation were ego-resilience, personality,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The combined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for college adaptation was 64.8%.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for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training initiatives, and curricular activities to enhance ego-resilience, foster appropriate personality, increase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and improve commitment to career choice levels among new nursing students residing in various regions.

Key Words: Nursing, Freshmen, Adapta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학과는 2011년 184개에서 2020년 203개로 증가하였고, 간호학과 입학 정원도 2011년 15,474명에서 2020년 20,692명으로 크게 증가한 상태이다[1]. 그러나 졸업 후 높은 취업

률을 보이는 학과 특성상 전공과정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증가하며 적응의 불일치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1,2].

대학 생활 적응은 대학에서 발생하는 학업활동 및 사회활동에 적응하고 대학 및 학생에게 유대감을 갖는 것으로, 대학 생활 적응이 낮으면 학업중단 고려 가능성이 높아진다[3]. 간호학과와

주요어: 타 지역 간호, 신입생 적응

* 이 논문은 제1저자 황보정의 석사학위 논문 축약본임

IRB 승인기관 및 번호: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 No: 40525-202203-HR-007-02]

Corresponding author: Park, Heeok (<https://orcid.org/0000-0002-8194-0373>)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1095 Dalgubeol-daero, Dalseo-gu, Daegu 42601, Republic of Korea

Tel: +82-053-258-7655 E-mail: hopark@kmu.ac.kr

Received: 18 February 2023 Revised: 7 May 2023 Accepted: 7 May 202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Derivs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If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retained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production, it can be used and re-distributed in any format and medium.

유사한 환경에 있는 의학과 의 경우 2021년 학과 중도탈락 비율이 0.18%인 것에 비해 간호학에서는 2.09%로 더 높게 나타나[4], 간호학과 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관심과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간호학과 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자 수행된 연구로 학생의 대인관계 능력, 교수-학생 상호작용 등의 학생 중심의 관계 능력이 보고되었다[5,6]. 또한, 학생의 인성 및 정서기능과 같이 학생의 정서적 상태도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8],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등과 같이 다양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역량도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9]. 하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간호학과 신입생 또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적응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경우 본가를 떠나 대학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의 지원이 부족하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적기에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학생들에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인성은 개인이 갖추게 되는 기질적인 요소와 사회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가치 있는 인격으로서[7], 간호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간호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역량이기도 하다[10]. 따라서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임상에서 요구되는 인성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성은 연령과 학년에 따라 더욱 성숙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사회적 지지체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학 생활 동안 지속적이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될 필요가 있다[11,12].

또한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고 융통성 있게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13], 다양한 스트레스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4].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이러한 대학 생활 적응 관련 요인들은 일반적인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된 것으로서 타 지역 거주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관련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타 지역 거주 신입생의 경우 타지 생활을 하기에 입학 후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에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15]. 기숙사 거주 학생의 경우 기숙사 거주를 유지하기 위한 학점 부담감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16]. 또한 타 지역 거주 학생은 다양한 사유를 가지고 타향에 위치한 대학에 진학 후 학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데, 유학생에게 외로움 및 제한된 대인관계는 대학 생활 적응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된다[17]. 마찬가지로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경우 외로움 및 감소된 대인관계와 지지체계 등을 경

험할 수 있어 이들의 인성과 자아탄력성이 대학 생활 적응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에 대해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간호학과 학생 대상의 대학 생활 적응 관련요인으로서 연구가 미흡한 진로선택몰입은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을 진로목표와 동일시하여 가지는 진로 선택에 대한 애착과 확신을 의미하는 것으로[18], 진로선택몰입이 부적절하게 형성되는 경우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이는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취업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한다[19,20]. 따라서 특수한 환경에 처한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선택몰입 정도를 파악하여 대학 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과 대학 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과 대학 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성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22학년도 간호학과 신입생으로 대구광

역시에 거주 중인 타 지역 출신이며 간호학과 입학 후 3개월 이상의 대학생활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학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은 3개월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였다[20].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 측정도구를 개발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24],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인 .15, 검정력 .80, 예측변수 18개(일반적 특성 15개, 독립변수 3개)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 150개로 산출되었다. 2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188부를 목표로 하였으며, 총 201부의 온라인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이 중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탈락되는 26부를 제외한 총 175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인성

인성 측정도구는 Kim[21]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진흥법 핵심가치덕목에 근거하여 개발한 인성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7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다. 하위영역으로는 예, 효, 정직, 존중, 협동, 책임 요인 각 5문항과 배려 4문항, 소통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 37점에서 최고 18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인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93$ 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93$ 으로 나타났다.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측정도구는 Block & Kremen[13]이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scale, ERS)를 Yoo와 Shim[22]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4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다. 하위영역으로는 대인관계 3문항, 활력성 2문항, 호기심 5문항, 감정통제 2문항, 낙관성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 14점에서 최고 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Block & Kremen[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76$ 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87$ 으로 나타났다.

3) 진로선택몰입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는 Blustein et al.[23]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직업적 탐색 몰입 척도(VECS: 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Survey)를 Choi가 번안하고 Kim[18]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9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다. 최저 19점에서 최고 95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선택몰입 수준이 높음

을 의미한다. Kim[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93$ 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90$ 으로 나타났다.

4) 대학 생활 적응

대학 생활 적응 측정도구는 Park[24]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전반적 대학생활 적응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4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다. 하위영역으로는 대인관계, 전공만족 각 9문항, 전공수월성, 대처역량 각 5문항, 취업준비, 학업충실도 각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 34점에서 최고 1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92$ 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95$ 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에 따라 IBM SPSS/WIN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대학 생활 적응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 4)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및 대학 생활 적응과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5.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2년 6월 20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 전 연구자가 해당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학과장에게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과 협조를 구한 후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과 연구를 위한 모바일 SNS 채널을 각 간호대학 간호학과 게시판에 통해 공지하였다. 모집공고문을 보고 연구 참여의사를 밝혀 모바일 SNS 채널로 접속한 연구대상자에게 모바일 SNS 채널의 공지사항 전달기능을 통해 자료 수집 전 연구의 목적, 내용과 방법 및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 후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에 한해 온라인 연구 참여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온라인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약 30 분이며, 설문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모바일 SNS 선물하기를 통해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승인(IRB No. 40525-202203-HR-007-02)을 받은 후 시작되었고 참여의사를 밝힌 자에게 공지사항 전달기능을 통해 자료 수집 전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소요 시간, 사생활과 비밀보장,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과 연구 참여 도중 중도 탈락 가능성, 연구 참여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 관리 및 비밀 보장, 연구에 대한 문의사항 시 연락 가능한 연구자의 연락처를 기술한 설명문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익명이 보장되도록 개인정보는 코드화되어 암호화된 USB에 저장 후 연구자의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였고 연구 자료의 보관 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 문서 파일을 영구 삭제하여 자료의 비밀을 보장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타 지역 거주 간호대학 신입생의 성별은 150명(85.7%)이 여성으로 평균연령은 20.48세였다. 종교는 무교가 127명(72.6%), 건강 상태는 좋음이 90명(51.4%), 가정의 경제수준은 '중'이 137명(78.3%), 본인 포함 형제 수는 1명이 101명(57.7%)으로 가장 많았다. 학기 중 수입이 없는 학생이 106명(60.6%)로 수입이 있는 학생보다 더 많았고, 출신지는 경북권이 89명(50.9%), 거주형태는 기숙사가 80명(45.7%), 자취가 77명(44.0%)으로 가장 많았다.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는 학생이 116명(66.3%)이며, 동거인은 친구가 76명(65.5%)으로 가장 많았다. 동아리 경험 '있음'이 99명(56.6%)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 선택 동기는 '취업률 고려' 124명(47.7%), 간호학 만족도는 만족~매우 만족이 110명(62.9%)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5)

Variable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25 (14.3)	
	Female	150 (85.7)	
Age	17~19	110 (62.9)	20.48±3.754
	20~24	42 (24.0)	
	≥25	23 (13.1)	
Religion	Christianity	26 (14.9)	
	Catholic	9 (5.1)	
	Buddhism	13 (7.4)	
	None	127 (72.6)	
Physical condition	Good	90 (51.4)	
	Neutral	85 (48.6)	
	Bad	0 (0)	
The economic level of a family	Upper	18 (10.3)	
	Middle	137 (78.3)	
	Lower	20 (11.4)	
The number of brothers (Including him/herself)	0	22 (12.6)	
	1	101 (57.7)	
	2	52 (29.7)	
Income	Yes	69 (39.4)	
	None	106 (60.6)	
Orig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 (Seoul, Gyeonggi, Incheon)	21 (12.0)	
	North Gyeongsang province	89 (50.9)	
	South Gyeongsang province (South Gyeongsang province, Ulsan, Busan)	51 (29.1)	
	Others (Daejeon, Chungbuk, Jeonnam, Gangwon)	14 (8.0)	

Variables	Categories	n (%)	M±SD
Type of residence	Dormitory	80 (45.7)	
	Live on one's own	77 (44.0)	
	Relatives' house	18 (10.3)	
	Boarding house	0 (0)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roommate	Yes	116 (66.3)	
	No	59 (33.7)	
Types of housemates*	Friend	76(65.5)	
	Family (parents, brothers, relatives, grandmother)	40 (34.5)	
The number of friends in the class	0~2	83 (47.4)	
	3~5	67 (38.3)	
	≥6	25 (14.3)	
Experience in club activities	Yes	99 (56.6)	
	No	76 (43.4)	
Motivation of selection for nursing †	Aptitude	80 (30.8)	
	Parents' opinions	35 (13.4)	
	Employment rate	124 (47.7)	
	Other‡	21 (8.1)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Very dissatisfied ~ Unsatisfied	4 (2.3)	
	Neutral	61 (34.8)	
	Satisfied ~ Very satisfied	110 (62.9)	

M=Mean; SD=Standard Deviation; *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roommate 'yes' Selected Participants, n=116; †Multiple answers, n=260; ‡ Considering to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 scores, Considering to high school grades, Professional jobs, Graduated from nursing high school, High salaries, A desire to be a nurse

2.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대학 생활 적응의 정도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대학 생활 적응은 모두 5점 만점으로 인성은 평균 4.10±0.41점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은 평균 3.55±0.62점이었다. 진로선택몰입은 평균 3.36±0.59점이었고, 대학 생활 적응은 평균 3.63±0.58점이었다(Table 2).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건강상태가 좋은 대상자가 보통인 경우보다 대학 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 친구 수 6명 이상인 대상자가 0~2명인 경우보다 대학 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났고, 간호학 만족도가 '만족~매우만족'인 대상자가 '보통'인 경우보다 대학 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t=2.71, p=.007), 종교(F=2.90, p=.037), 건강상태(t=-3.60, p<.001), 학과 친구 수(F=7.02, p=.001), 간호학 선택동기(F=4.11, p=.007), 간호학 만족도(F=34.72, p<.001)에서 대학 생활 적응에 통계

4.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및 대학 생활 적응의 상관관계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대학 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활 적응은 인성(r=.632, p<.001), 자아탄력성(r=.617, p<.001), 진로선택몰입(r=.533,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175)

Variables	N	M±SD	Min	Max
Personality	175	4.10±0.41	3.00	5.00
Ego-resilience	175	3.55±0.62	2.29	5.00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175	3.36±0.59	2.16	4.89
Adaptation to college	175	3.63±0.58	1.59	4.97

M=Mean; SD=Standard Deviation; Min=Minimum; Max=Maximum.

Table 3. Differences in College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75)

Variables	Categories	College life adjustment	
		M±SD	t or F(p) scheffé
Gender	Male	3.92±0.61	2.71(.007)
	Female	3.59±0.56	
Age	17~19	3.57±0.58	1.82(.165)
	20~24	3.69±0.60	
	≥25	3.80±0.52	
Religion	Christianity	3.54±0.69	2.90(.037) n/a
	Catholic	3.71±0.54	
	Buddhism	4.07±0.49	
	None	3.60±0.55	
Physical condition	Good	3.78±0.56	-3.60(<.001)
	Neutral	3.48±0.57	
The economic level of a family	Upper	3.60±0.60	2.13(.122)
	Middle	3.60±0.56	
	Lower	3.90±0.65	
The number of brothers (Including himself)	0	3.64±0.46	1.89(.154)
	1	3.70±0.58	
	2	3.51±0.61	
Income status	Yes	3.61±0.57	-0.47(.638)
	None	3.65±0.59	
Orig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 (Seoul, Gyeonggi, Incheon)	3.79±0.67	1.56(.200)
	North Gyeongsang province	3.55±0.56	
	South Gyeongsang province (South Gyeongsang pProvince, Ulsan, Busan)	3.72±0.57	
	Others (Daejeon, Chungbuk, Jeonnam, Gangwon)	3.59±0.56	
Type of residence	Dormitory	3.62±0.61	2.00(.138)
	Live on one's own	3.59±0.52	
	Relatives' house	3.89±0.63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roommate	Yes	3.65±0.57	0.65(.518)
	No	3.59±0.60	
Types of housemates*	Friend	3.59±0.59	-1.55(.125)
	Family (parents, brothers, relatives, grandmother)	3.77±0.52	
The number of friends in the department	0~2 ^a	3.48±0.58	7.02(.001) a<c
	3~5 ^b	3.71±0.50	
	≥6 ^c	3.93±0.65	
Experience in club activities	Yes	3.70±0.54	1.88(.061)
	No	3.54±0.62	
Motivation of selection for nursing [†]	Aptitude	3.80±0.47	4.11(.007) n/a
	Parents' opinions	3.48±0.75	
	Employment rate	3.58±0.53	
	Other [‡]	3.81±0.64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Very dissatisfied~dissatisfied ^a	3.85±0.51	34.72(<.001) c<b<a
	Neutral ^b	3.32±0.46	
	Satisfied~very satisfied ^c	2.41±0.57	

M=Mean; SD=Standard Deviation; *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roommate 'yes' Selected participants, n=116; †Multiple answers, n=260; ‡ Considering to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 scores, Considering to high school grades, Professional jobs, Graduated from nursing high school, High salaries, A desire to be a nurse

Table 4.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Personality, Ego-resilience, Commitment to Career Choice, and Adaptation to College (N=175)

Variables	Personality	Ego-resilience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Adaptation to college
	r (p)	r (p)	r (p)	r (p)
Personality	1			
Ego-resilience	.449 (.001)	1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457 (.001)	.275 (.001)	1	
Adaptation to college	.632 (.001)	.617 (.001)	.533 (.001)	1

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즉,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높을수록 대학 생활 적응 수준도 높았다.

5.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그리고 t-test와 ANOVA 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 6개(성별, 종교, 건강상태, 학과 친구 수, 간호학 선택 동기, 간호학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하였으며 2.03으로 나타나 2에 가까워 오차의 자기상관성은 없어 잔차의 독립성이 충족되었다. 독립변인 간 공차한계는 .643~.960으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는 1.29~1.56으로 기준치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36.60, p<.001), 자아탄력성(β=.39, p<.001), 인성(β=.27, p<.001),

간호학 만족도(β=.27, p<.001), 진로선택몰입(β=.17, p=.003)이 대학 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64.8%의 설명력을 갖는다. 즉,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의 수준이 높고 간호학 만족도가 높을수록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정도를 확인하고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생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대학 생활 적응 정도는 총점 5점 중 평균 3.6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 적응을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3.41

Table 5. Effect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Ego-resilience, and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on College Adaptation (N=175)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3.16	.07		43.70	<.001	0.47	.33		1.45	.150	0.07	.29		0.26	.797	-0.02	.29		-0.29	.775
Gender	0.18	.11	.11	1.71	.090	0.15	.09	.09	1.63	.106	0.06	.08	.03	0.72	.474	0.05	.08	.03	0.59	.559
Religion	0.38	.14	.17	2.69	.008	0.28	.12	.13	2.31	.022	0.06	.11	.03	0.57	.571	0.07	.11	.03	0.62	.538
Physical condition	0.20	.08	.18	2.70	.008	0.10	.07	.08	1.47	.143	0.10	.06	.08	1.72	.087	0.10	.06	.08	1.74	.084
The number of friends in the class	0.17	.11	.10	1.57	.118	0.08	.09	.05	0.91	.366	0.03	.08	.02	0.42	.675	0.01	.08	.01	0.10	.920
Motivation of selection for nursing	-0.07	.08	-0.06	-0.96	.339	-0.04	.06	-0.04	-0.70	.486	-0.01	.06	-0.01	-0.16	.872	-0.01	.05	.01	-0.23	.816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0.51	.08	.42	6.48	<.001	0.37	.07	.31	5.37	<.001	0.38	.06	.32	6.39	<.001	0.32	.06	.27	5.18	<.001
Personality						0.69	.08	.49	8.43	<.001	0.47	.08	.33	5.94	<.001	0.39	.08	.27	4.88	<.001
Ego-resilience											0.38	.05	.40	7.36	<.001	0.37	.05	.39	7.28	<.001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0.16	.05	.17	3.06	.003	
	R ² =.333, Adj. R ² =.309 F=13.99, p<.001					R ² (ΔR ²)=.532 (.199), Adj. R ² =.513 F=27.15, p<.001					R ² (ΔR ²)=.647 (.115), Adj. R ² =.630 F=38.09, p<.001					R ² (ΔR ²)=.666 (.019), Adj. R ² =.648 F=36.60, p<.001				

SE=Standard Errors; Dummy Variable: Gender (male=1), Religion (Buddhism=1), Physical condition (good=1), The number of friends in the class (≥ 6=1), Motivation of selection for nursing (appropriateness=1),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very satisfied~satisfied=1)

점[25],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간호학과 1, 2학년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 적응을 측정된 연구에서 3.23점으로 나타나 [6], 본 연구에서 대학 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을 파악한 1개 연구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동일 대상자를 포함한 반복연구나 타 학과 학생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인성수준은 총점 5점 중 평균 4.10점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성수준을 측정된 선행연구의 결과인 3.98점보다 높았다[28]. 본 연구 대상자인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경우 일반 4년제 대학생보다 인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일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 수준을 측정한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 비교는 어려운 실정으므로 추후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총점 5점 중 평균 3.55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을 측정된 선행연구에서 2.85점으로 나타난 것으로 비해[27],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해 자아탄력성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 차원의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고, 교수자도 이를 위한 역량을 개발 및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진로선택몰입 수준은 총점 5점 중 평균 3.36점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선택몰입 수준을 측정된 선행연구의 결과인 3.13점보다 높았다[19]. 본 연구 대상자의 진로선택몰입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학과의 특성상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진학과 함께 진로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학과 차원에서 신입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조절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통해 진로선택몰입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개발 및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의 차이는 성별, 종교, 건강상태, 학과 친구 수, 간호학 선택동기, 간호학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 결과, 학과 친구 수 0~2명인 학생보다 6명 이상인 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im과 Park[6]의 연구에서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대학 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Lim과 Lee[20]의 연구에서도 기숙사 거주 대

학생이 룸메이트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 행사에 참여함은 대학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한 것과 유사하다. 또한 간호학 만족도에서도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im[7]의 연구에서 전공에 만족인 학생이 불만족, 보통인 학생에 비해 대학 생활 적응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 대학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학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분위기의 조성 또한 필요함을 시사한다.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보고된 것과 일치하였으며[5],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대학 생활 적응에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결과와 유사하였다[26].

본 연구에서 대학 생활 적응에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성으로, 인성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이 높았다. 이는 인성이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7]. 또한 인성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예절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인성교육에서 존중과 배려, 아울러 협동을 비롯한 소통능력을 포함한 인성교육이 요구되고 있다[11]. 병원은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동하여 근무하기에 상호 간 협력은 환자의 생명과 연관될 만큼 중요하며, 간호사의 인성은 간호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량이다 [10]. 따라서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신입생 시절부터 배려와 협력 능력의 증진을 위한 인성교육을 통해 대학 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 생활 적응에 세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적 특성 중 간호학 만족도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전공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대학 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29]. 간호학과의 특성상 졸업 후의 진로가 뚜렷한 특수성이 있으므로 전공 만족도가 대학 생활 적응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므로[5], 졸업 후 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전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학과차원에서 간호학과 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해 4년의 교육과정 동안 국가고시 준비를 위한 필수 교과목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전공에 대한 만족

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대학 생활 적응에 네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선택몰입으로 선택한 진로에 대한 몰입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이 높았다. 진로선택몰입의 개념이 비교적 최근 대두되어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선택몰입과 대학 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한 선행연구의 부재로 직접비교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선택몰입 수준을 측정된 Lee와 Jung[30]의 연구에서 진로선택몰입이 평균 3.21점, 본 연구에서 평균 3.36점으로 본 연구에서 진로선택몰입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과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몰입이 감소하기에 선택한 진로에 대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학년이 증가할수록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 수준과 대학 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검토하며 대학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조절하고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통해 진로선택몰입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통합적 진로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이들의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간호학과 신입생만을 특정하여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일반적인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특정지역 기준 타 지역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적이며, 향후 타 지역의 범위를 넓혀 간호학과 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과 관련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도구인 설문지를 사용하여 변수를 측정된 연구이므로 향후 질적 연구 등을 통해 변인들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단기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인과 대학 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종단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고,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간호학 만족도가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의 향상을 위해 자아탄력성의 증진, 올바른 인성 함양, 간호학 만족도 상승 및 높은 진로선택몰입 수준의 증진을 위한 교육과 훈련 및 교과 활동의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의 특성과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제안하고, 대학 생활 적응과 관련된 학생의 개인적 특성, 대학 조직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을 모두 포괄한 연구를 제안한다.

ORCID

Hwangbo, Jeong

<https://orcid.org/0000-0002-0469-5319>

Park, Heeok

<https://orcid.org/0000-0002-8194-0373>

REFERENCES

1. Korea Nursing Association. Main status of nursing statistics [Internet]. Seoul: 2021[cited 2022 October 4]. Available from: <http://www.koreanurse.or.kr/resources/statistics.php>
2. Je NJ, Park MR. Impact on department adaptation of field practice adaptation, college adaptation, and awareness of death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19(10):300-12. <https://doi.org/10.5762/KAIS.2018.19.10.300>
3. Park HS.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local college freshmen's intention of dropout: Focused on c-colleg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17(15):423-42.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15.423>
4. Korea Ministry of Education. Status of dropout students [Internet]. Seoul: 2022[cited 2022 October 4]. Available from: <https://www.academyinfo.go.kr/index.do>
5. Lee YO, Joen YH, Kim MS.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 ego resilience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2018;25(3):336-45. <https://doi.org/10.21086/ksles.2018.06.25.3.336>
6. Lim KM, Park JH.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ir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19(9):195-205. <https://doi.org/10.5762/KAIS.2018.19.9.195>
7. Lim MH. Effects of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8):560-8. <https://doi.org/10.5762/KAIS.2016.17.8.560>
8. Park HT. A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3):1576-83. <https://doi.org/10.5762/KAIS.2014.15>
9. Kim MY, Jung JS, Yang CE.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career identity and self efficacy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 20(6):1267-84.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6.1267>
10. Weis D, Schank MJ.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000;32(2):201-4. <https://doi.org/10.1111/j.1547-5069.2000.00201.x>
 11. Seong MH, Kim EJ. An analysis on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ersonality education, personality development level and their demand for personality education.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2015;38:177-202. <https://doi.org/10.18850/JEES.2015.38.177-202>
 12. Yoon YJ, Kim JK. Relationship with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Edutainment*. 2022;4(2): 27-36. <https://doi.org/10.36237/koedus.4.2.27>
 13. Block J, Kremen A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6;70(2):349. <https://doi.org/10.1037/0022-3514.70.2.349>
 14. Uslu M, Girgin C. The effects of residential conditions on the problem solving skills of university student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010;2(2):3031-5. <https://doi.org/10.1016/j.sbspro.2010.03.459>
 15. Park YJ, Oh GS, Lee SJ, Oh KO, Kim JA, Kim HS, et al. Social support, stressful life events, and health behaviors of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2;32(6):792-802. <https://doi.org/10.5392/JKCA.2011.11.9.225>
 16. Lee OS, Hong MJ, Gu HJ. The correlation between school-life stress, depression and college adjustment residing in the dormitory.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9):483-92. <https://doi.org/10.5762/KAIS.2016.17.9.483>
 17. Park EM, Hwang BY, Jung TY.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life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for chinese international undergraduates in south korea: Moderating effects of some variable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10;18(2):145-52.
 18. Kim TH.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assessing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for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19;32(2):47-78. <https://doi.org/110.32341/JCER.2019.06.32.2.47>
 19. Jeon MR. The effects of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and personality factors on college students' commitment to career choic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al self-efficacy.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20;39(4):1-24. <https://doi.org/10.37210/JVER.2020.39.4.1>
 20. Lim YH, Lee YS. Exploring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of first-year students living on campus: Focusing on their relationship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019;48:111-31. <https://doi.org/10.20993/jSSW.48.5>
 21. Kim SJ. Development of the character scale based on the main pillars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2017;11(3):217-58.
 22. Yoo SK, Shim HW.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2002;16(4): 189-206.
 23. Blustein DL, Ellis MV, Devenis LE.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wo-dimensional model of the commitment to career choices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89;35(3):342-78. [https://doi.org/10.1016/0001-8791\(89\)90034-1](https://doi.org/10.1016/0001-8791(89)90034-1)
 24. Park S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life adjustment instrument for nursing students [dissertation]. Yongin: Dankook University; 2017. pp. 1-126.
 25. Jee YJ, Yang SK. Effect of college adjustment program for freshmen of nursing on self-efficacy, career Identity, adaptation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1;21(16):215-23.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6.215>
 26. Ji Xiang. The effect of social problem solving competence,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ego-resilience of chinese oversea students in south korea on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dissertation]. Busan: Dong-A University; 2015. pp. 1-105.
 27. Ko MS.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5;15(10):280-91. <https://doi.org/10.5392/JKCA.2015.15.10.280>
 28. Shin MS. The mediating effect of the anger 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ity level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apability of the university student [master's thesis]. Gimhae: Kaya University; 2021. pp. 1-80.
 29. Choi YH, Chae MJ.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major satisfaction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9;9(10):479-91. <https://dx.doi.org/10.35873/ajmahs.2019.9.10.041>
 30. Lee SY, Jung CS.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type, career choice commitmen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2017;12(4): 143-52. <https://dx.doi.org/10.21097/ksw.2017.11.12.4.143>